

# 서양 불교서적...에세이, 학술서 등 인기

### 삼발라선 발행지 '붓다달마' 2012 불서베스트 16 선정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불교 계간지 '붓다달마(BuddhaDharma)'가 2012년 베스트 불서를 선정했다. '붓다달마'는 불교잡지 '삼발라 선(Shambhala Sun)'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잡지다.

'붓다달마'의 편집장 마이클 쉬하이(Michael Sheehy)는 "2012년 다양한 불교서적이 팔렸었다. 이 가운데 최고의 불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기준을 정해 책을 골라봤다"고 말했다.

붓다달마는 △불자들에게 수행법을 잘 전달하는 △불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책의 내용과 구성이 탄탄하고 번역이 잘돼 쉽게 읽을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16권의 책을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2012년 6월 최종 완간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편집장은 "불교서적 번역본들은 오랜 불교전통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영역본 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 불교에 대한 편견 없애는 불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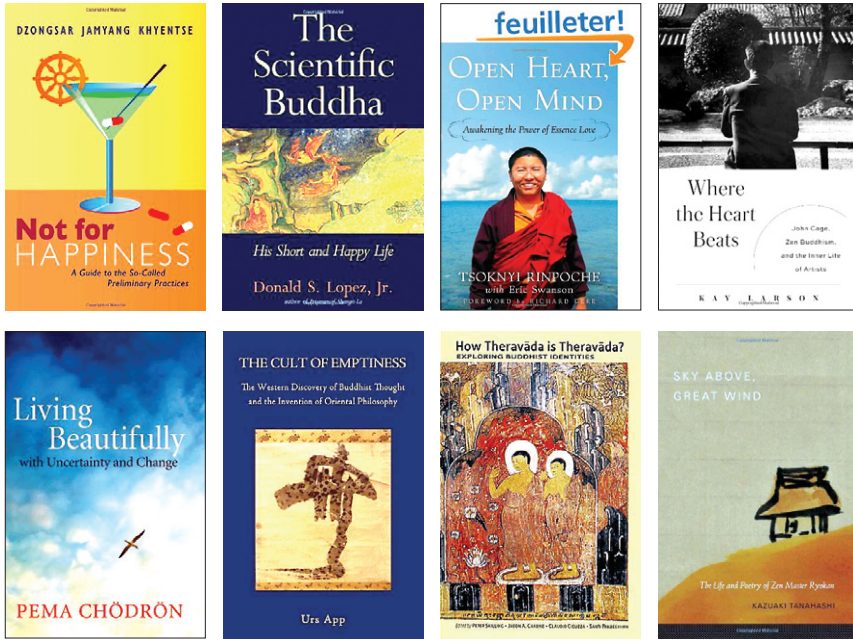
서구인들은 불교를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종교' '과학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화제작자이자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의 명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종사르 잠양 켄체(Dzongsar Jamyang Khyentse)는 그의 저서 <Not



붓다달마가 선정한 도서들은 불자들에게 수행법을 잘 전달하고, 불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정도서 가운데서는 2012년 6월 최종 완간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사진 왼쪽 상단)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For Happiness(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에서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종교다. 만약 당신이 불교를 통해 편안함을 찾겠다면 차라리 마사지를 받게 좋다. 그러나 만약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기초 수행(예비사가행: Ngondro)과 탄트라 수행을 하라"고 조언하며 단계별 수행 가이드를 제시한다.

미 미시간대 교수 도널드 로페즈(Donald S. Lopez)는 <The Scientific Buddha(과학적인 부처)>에서 "왜 우리는 불교가 비뉘어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윈의 진화론, 신경과학 등 과학적 이론을 예측했다는 것에만 열광하는가"라며 "물론 불교의 이론이 과학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 <한국불교총서>도 포함돼

"영역본 불서 불교연구에 필수"

### 불교 편견 깨는 불서도 인기

편하게 읽는 에세이 불서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는 티베트 스님 중 하나인 토크니 린포체(Tsoknyi Rinpoche)는 <Open Heart, Open Mind>에서 "고통, 불안, 불가능에 대한 의심 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기본 감정"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사랑과 자비, 신뢰를 서로에게 줌으로써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Where the Heart Beats>는 미국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의 예술과 삶,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순간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과 우연을 표현하여 음악을 만들었던 존 케이지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전우주가 들어있다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음악과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여성 승려인 페마초드론(Pema Chödrön)은 <Living Beautifully with Uncertainty and Change>에서 자신의 에고(ego)를 깨고 공포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철학, 학문적 접근 불서

우르스 엠(Urs App)은 前 일본 하노노 대학 교수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불교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The Cult of Emptiness(공의 추종)>에서 서구에서의 불교발전과 전파 그리고 동양철학의 발명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16세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됐고 이때 동양철학이 생겨나게 됐다고 주장한다.

피터 스킬링(Peter Skilling) 프랑스 극동학원 교수 외에 여러 필진이 참여한 <How Theravada is Theravada?>는 동남 아불교인 테라와다 불교의 형성부터 20세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그 외 번역서들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 <한국불교 총서(The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는 한국 불교의 정수인 원효·의상·지눌·휴정 등 한국불교사상에 이름을 남긴 선지식들의 문집을 선별해 13권의 영역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붓다달마는 "이 영역본을 통해 1700년의 한국 고승들의 문학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정토(淨土) 사상과 대승불교 등 한국불교의 정수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y Above, Great Wind>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님인 카즈아키 타나하시(Kazuaki Tanahashi) 스님의 선시(禪詩) 모음집이다.

이밖에 붓다달마는 양국따라니까야 영역본인 <The Numerical Discourses of the Buddha>를 비롯해 <To Dispel the Misery of the World> <A Torch Lighting the Way to Freedom> <The Lankavatara Sutra> <Jewels from the Treasury> <The Treasury of Knowledge> <The Ceasing of Notions> 등을 선정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인생골곡 뱀처럼..."

불광산사 성운 스님 신년 휘호



### 曲直向前 福慧雙全(곡직항전 복혜쌍전)

"인생의 골곡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은 '앞으로 나아가야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뱀이 몸을 구부려야만 목표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공간을 주고 자신도 여유를 가지면서 복덕과 지혜를 쌓아간다면 사람과 사람이 원만하고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대불광산사 개산종장 성운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에 2013년 신년 하례 메시지와 휘호(揮毫)를 보냈다.

### 우명주 박사의

###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1>



인도의 불교라는 말은 과거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 과거는 부처님 당시일 수도 있고 화려했던 대승불교 시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불교가 탄생하고 발전했던 그 땅에서 '신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현대인도불교를 살펴본다.

인도는 부처님의 나라이자 불교의 발상지이다. 따라서 지금도 인도에서 불교가 부처님 당시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인도의 불교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이 태어나고 화려하게 성장했던 인

도에서 불교는 12~3세기경에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불교가 서서히 힌두교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설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현장 스님이 인도를 방문했던 7세기에도 이미 쇠퇴의 기미를 보여주던 불교는 이슬람의 침공과 함께 거의 인도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인도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종교인 불교가 다시 주목받게 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던 불자의 수가 그나마 인구전체의 1%에 가깝게 된 데에는 1956년에 있었던 불가촉천민들의 집단개종행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56년 10월 14일에 열렸던 이 집단개종식에서 사십만명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불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개

## 불가촉천민 집단 불교개종 이끈 불교부흥 선구자

### 암베드카르는 누구인가 <상>



암베드카르 (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

종식의 중심에는 암베드카르 박사가 있다. 이 개종식에서 암베드카르는 이 거대한 군중 앞에서 당시 인도에서 가장 법안이 높은 승려였던 미안마 출신 우 찬드라미니 스님께 수계를 받았다. 삼귀의를 낭송하고 불상 앞에 삼배를 올린 암베드카르는 군중들을 향해 돌아서서 불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라고 외쳤다. 흰 옷을 입고 그곳에 모인 사십만명의 군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암베드카르를 따라 삼귀의와 오계를 낭송하고 불자가 되었다. 다음날 늦게 도착한 십만명의 군중을 위해서도 같은 의식이 열렸고 이를 동안 무려 오십만명의 사람들이 불교신자가 되었다. 이는 인도에서 객역으로만 남아 있던 불교가 살아있는 종교로 다시 부활하는 계기이자 '신불교'로 표현되는 현대인

도불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 개종을 이끌었던 암베드카르 박사는 현대 인도에서의 불교부흥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암베드카르 박사는 인도의 초대법무부장관이다. 그러나 그는 인도의 계급제도인 카스트제도에서 말하는 '불가촉천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카스트제도는 30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의 네 계급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의 불가촉천민은 어디에 포함될까? 그들은 그 카스트에도 들 수 없는, 카스트 바깥의 존재들이다. 이렇듯 그들은 인간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무엇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상위계급에 속하는 힌두교도들은 불

가촉천민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가촉천민들은 상위계급 힌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멀리서도 알아채고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거나 밤에만 외출을 해야 했다. 또한 그들은 사원출입이 금지되었고, 마을공동우물의 물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버스나 기차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 없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별은 19세기 말까지 성행했다.

### 우명주 박사는...

동국대학교(경주) 불교학과 졸업. 델리대학교 불교학과 석·박사를 거쳐 델리대학교 동아시아 학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21 인도통신원으로 활동했다. 오는 3월부터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로 강의에 선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1) 초·중급과정

- ◆ 초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 불교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중, 고등과정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발원지이며 청소년 인성교육의 20년 전통인 골굴사 부설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교는 검정고시를 대비한 교과학습 지도와 다양한 전통문화 실습과 선무도, 승마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성을 치유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수탁교육지정 시설)

▶ 모집대상 및 기간

- 중등과정 20명, 고등과정 10명
- 2013년 1월 ~ 2월 중 수시로 개별상담

▶ 학교특성 선무도를 비롯한 전통무예 수련과 승마교육

- 템플스테이 외국인 연인원 7천명과 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생활
- 선무도 승단후 (약1년) 공연단 참가시 장학금 지급
- 선무도 사범, 법사로 육성· 국내,외 지원으로 파견
- 동진출가 발심자나 결손가정 자녀는 학비전액 무료

▶ 전 화 : 070-8870-0246, 054)775-1689  
홈페이지 : www.golgusa.com, cafe: daum.net/sunmudoschool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단법인 선무도대금강문, 선무도화랑사관학교